

현안과제연구

2014-096

# 2013년도 마을만들기 참여주민 의식 변화 및 성과 분석

연구수행 : 조영재

# 2013년도 마을만들기 참여주민 의식 변화 및 성과 분석

연구수행 : 조영재 (농촌·농업연구부장)

## 목 차

I. 연구개요	/ 1
II. 마을만들기 참여주민 의식 분석	/ 2
III. 요약 및 결론	/ 13

# I 연구개요

## 1. 연구 배경 및 목적

- 90년대 이후 농정의 방향이 단순한 식량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업 중심에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농간 격차 해소 등을 반영하는 농어촌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음
- 이와 함께 다양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, 주민주도의 상향식 개발사업을 표명하면서도 실제로는 공공이 주도하는 하향식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옴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
-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최근 주민주도의 상향식 농어촌개발 및 내발적 지역발전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,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
- 충청남도에서도 민선5기의 주요 시책으로 「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」가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, 본 연구에서는 2012년에 이어 2013년 마을만들기(마을발전계획 수립)에 참여한 주민의 의식변화 및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추진에 반영하고자 함

## 2. 연구내용 및 방법

- 첫째, 2013년도 마을만들기(마을발전계획 수립)에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마을만들기의 만족도 및 의식변화, 과제 등을 분석함
- 둘째, 2012년 참여주민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분석결과와 2013년 분석 결과를 비교·분석함
-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마을만들기의 향후 과제를 도출함

## Ⅱ 마을만들기 참여주민 의식 분석

### 1. 조사 개요

#### 1) 목적

-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를 통해 참여하였던 주민들의 의식변화 및 성과를 분석하고자 함
- 특히, 2013년도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참여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전과 후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, 그리고 마을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 조사·분석함

#### 2) 방법 및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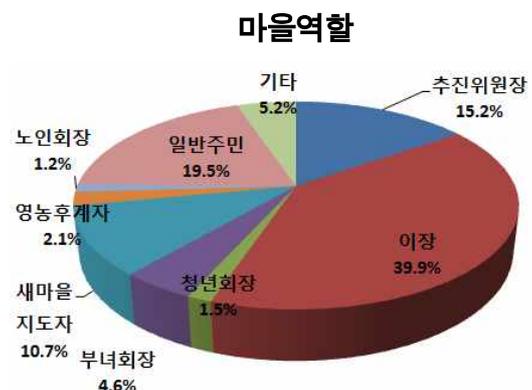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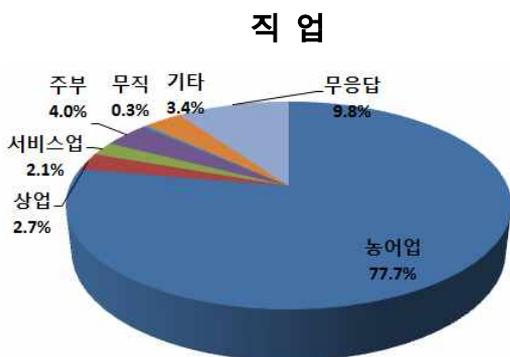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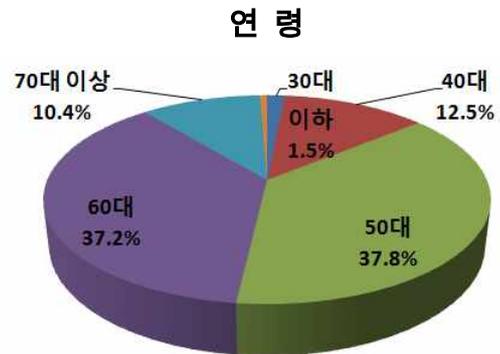
- 충남도 및 시·군의 행정계통을 통하여 2014년 5월 ~ 6월 약 2개월 동안 조사가 이루어졌으며, 15개 시군별로 2013년도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참여한 마을주민 중 리더 2~3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됨
- 그 결과 250개 대상마을 중 172개 마을의 328명이 조사되어 대상마을 기준 68.8%의 응답률을 보였으며, 시군에 있어 아산시와 부여군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

시·군	2013년 대상마을 수(A)	조사 대상마을 수(B)	설문대상자 수	비율 B/A (%)
계	250	172	328	68.8
천안시	10	10	20	100.0
공주시	20	11	22	55.0
보령시	14	14	28	100.0
아산시	20	-	-	0.0
서산시	19	17	25	89.5
논산시	25	25	50	100.0
계룡시	3	3	6	100.0
당진시	17	4	5	23.5
금산군	16	16	32	100.0
부여군	25	-	-	0.0
서천군	14	12	24	85.7
청양군	14	14	24	100.0
홍성군	22	15	30	68.2
예산군	17	17	34	100.0
태안군	14	14	28	100.0

## 2. 조사 대상자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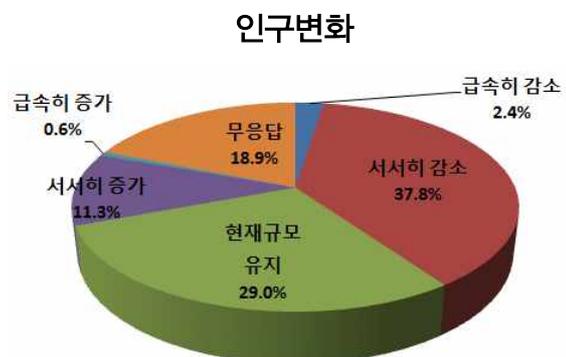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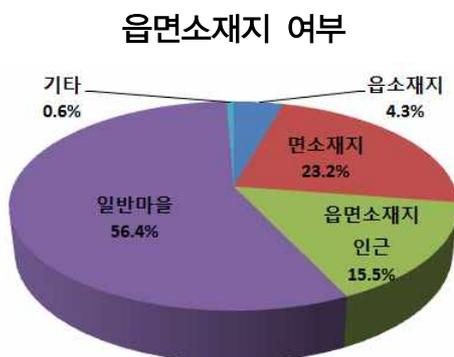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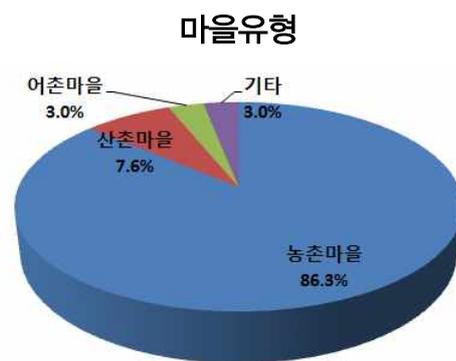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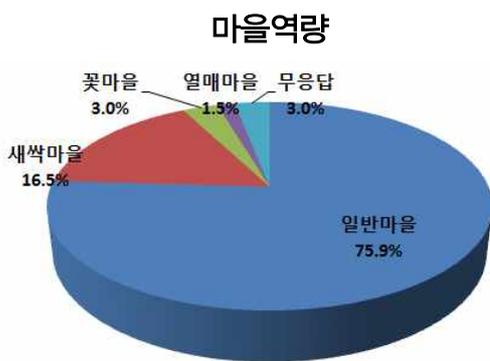
### 1) 일반현황

- 성별은 남성이 86.6%, 여성이 12.8%를 점유함
- 연령은 70% 이상이 50~60대(75.0%)로 구성되고, 40대 이하가 14.0%임
- 직업은 대다수가 농어업(77.7%)에 종사하고 일부 상업(2.7%)과 서비스업(2.1%)에 종사하고 있음
- 마을내 역할로는 이장이 39.9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다음으로는 일반주민 19.5%, 추진위원(장) 15.2% 등으로 나타남



## 2) 마을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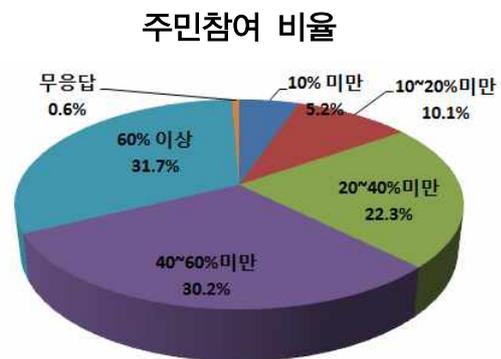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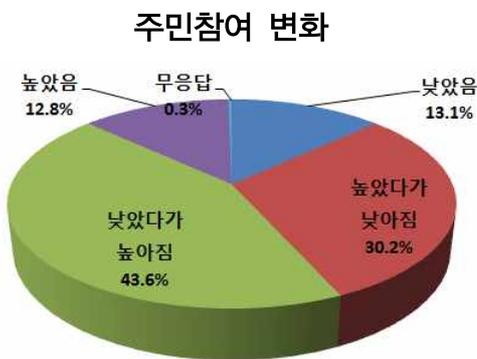
- 마을역량은 75.9%의 마을이 일반마을에 해당되고 16.5%가 새싹마을, 그 외 일부 마을이 꽃마을(3.0%)과 열매마을(1.5%)에 해당됨
- 마을유형은 농촌마을이 86.3%로 가장 많고, 그 외에 산촌마을 7.6%, 어촌마을 3.0%로 조사됨
- 조사대상 마을 대부분 읍면소재지와는 이격된 일반마을(56.4%)에 해당되며, 23.2%는 면소재지에 위치한 마을임
- 15.5%의 마을은 읍면소재지 인근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, 그 외에 읍소재지는 4.3%로 조사됨
- 인구변화를 보면 40.2%는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거나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, 11.9%는 서서히 또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
- 전체 대상마을 중 29.0%의 마을은 인구가 현재규모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



### 3. 마을발전계획 수립 과정 및 테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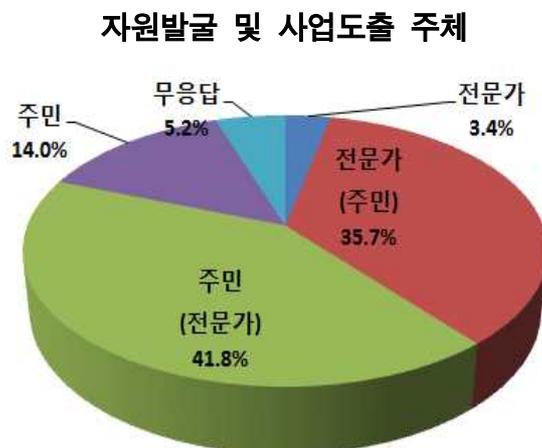
#### 1) 주민참여

- 마을발전계획 수립 과정상에서 주민의 참여도는 처음에는 낮았다가 높아졌다는 비율이 43.6%로 가장 높았으나, 반면 처음에는 높았으나 점차 낮아졌다는 비율도 30.2%로 높게 나타남
- 처음부터 끝까지 높았던 주민은 12.8%이며, 처음부터 끝까지 낮았다는 주민도 13.1%로 나타남
- 주민참여 비율은 60%이상의 주민참여를 보였던 마을이 31.7%, 40 ~ 60% 미만의 비율은 30.2%, 20~ 40% 미만의 비율은 22.3%로 나타났으며, 주민참여 비율이 20% 미만이었던 마을도 10.1%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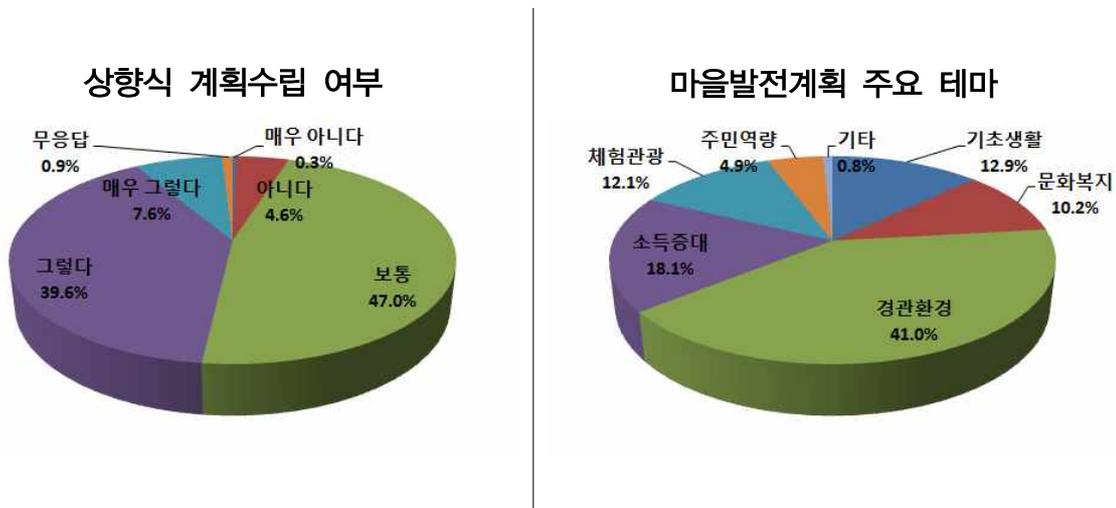
#### 2) 마을자원 및 사업 도출 방법

- 마을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마을 자원발굴 및 사업도출 방법으로 대부분의 마을(55.8%)이 약간의 전문가의 도움으로 마을주민 스스로가 제시하였거나 도움 없이 제시한 것으로 조사됨
- 반면, 모두 전문가가 제시하였거나 대부분 전문가가 제시한 마을도 39.1%를 점유하고 있음



### 3) 주민주도의 상향식 계획수립 여부 및 마을발전계획 테마

- 마을발전계획이 주민주도의 상향식으로 수립되었는지에 대해 43.4%의 마을이 상향식으로 수립되었다고 응답하였으나, 상향식으로 수립되지 못했다는 응답도 11.3%를 점유함
- 마을발전계획의 주된 테마로는 마을경관 및 환경의 정비가 40.0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다음으로는 소득사업의 추진 18.1%, 기초생활환경의 정비 12.9%, 농촌체험·관광의 추진 12.1% 등의 순서로 나타남
- 한편, 농촌체험·관광은 주요테마로 제시한 마을이 18.1% 이지만, 부수적인 테마로 제시한 마을까지 고려하면 과반수이상의 마을에서 농촌체험·관광을 마을발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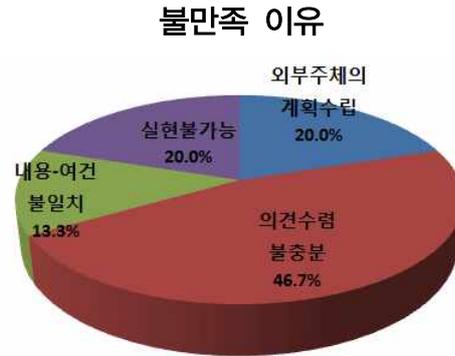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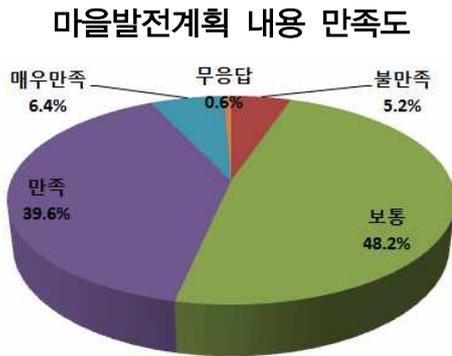


## 4. 마을발전계획 내용 및 마을학교 운영에 관한 만족도

### 1) 마을발전계획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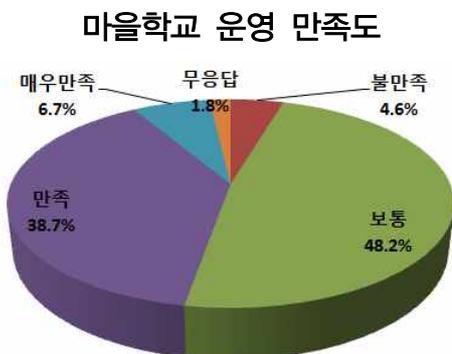
- 수립된 마을발전계획의 내용에 대해 마을주민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, 만족 및 매우 만족이라 응답한 주민은 46.0%로 나타났으며, 보통은 48.2%로 나타남
- 한편,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주민도 5.2%로 나타났으나,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
- 불만족의 이유에 대해서는 ① 전체 주민의 합의가 없이 소수 몇 명에 의해 계획이 수립되었다(46.7%), ② 주민 스스로의 계획이 아닌 외부(전문가 또는 컨설팅업체)에 의해 계획이 수립되었다(20.0%), 사업내용 및 규모, 사업비 등에 있어 실현

불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었다(20.0%) 등의 순서로 응답됨



## 2) 마을학교 운영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

- 마을학교 운영에 대해 마을주민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, 만족 및 매우 만족이라 응답한 주민은 45.4%로 나타났으며, 보통은 48.2%로 나타남
- 한편,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주민도 4.6%로 나타나, 전반적으로 마을학교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
- 불만족의 이유에 대해서는 ① 농번기 등 영농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일정 (40.0%), ② 주민의 수준과 관심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내용(26.7%), ③ 부적절한 강사초빙 및 강의방법(13.3%) 등의 순서로 응답됨



### 3) 시·군별 마을발전계획 만족도 변화

- 2013년 시·군별 마을발전계획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천안시, 계룡시, 금산군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
- 2012년 마을발전계획내용에 대한 만족도와 비교하여 2013년은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증가함
- 시군별로는 천안시, 서산시, 당진시, 금산군, 예산군은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, 나머지 시군은 만족도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남

시·군	마을발전계획 만족도(2013년)	순위	마을발전계획 만족도(2012년)	만족도변화 (2013-2012)
계	3.51	-	3.42	0.09
천안시	4.15	1	<b>3.65</b>	0.5
공주시	3.41	8	3.50	△0.09
보령시	3.54	6	3.61	△0.07
아산시	-	-	3.30	-
서산시	3.56	5	2.95	0.61
논산시	3.29	11	3.49	△0.20
계룡시	3.83	2	<b>3.67</b>	0.16
당진시	3.40	9	3.35	0.05
금산군	3.66	3	3.18	0.48
부여군	-	-	3.37	-
서천군	3.08	13	3.39	△0.31
청양군	3.42	7	3.54	△0.12
홍성군	3.27	12	3.55	△0.28
예산군	3.62	4	3.38	0.24
태안군	3.39	10	<b>3.74</b>	△0.35

#### 4) 시·군별 마을학교 운영 만족도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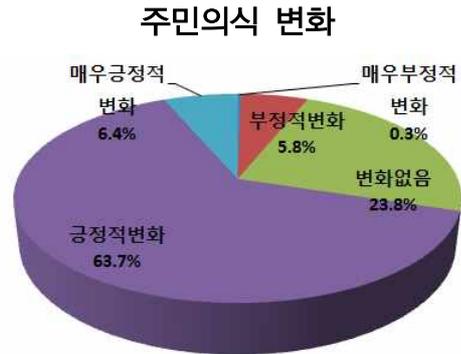
- 2013년 시·군별 마을학교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천안시, 계룡시, 서산시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
- 2012년 마을학교 운영에 대한 만족도와 비교하여 2013년은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증가함
- 시군별로는 천안시, 보령시, 서산시, 계룡시, 당진시, 금산군, 예산군은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, 나머지 시군은 만족도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남

시·군	마을학교 운영 만족도(2013년)	순위	마을학교 운영 만족도(2012년)	만족도변화 (2013-2012)
계	3.53	-	3.39	0.14
천안시	4.20	1	3.20	1.00
공주시	3.19	12	<b>3.67</b>	△0.48
보령시	3.57	6	3.32	0.25
아산시	-	-	3.33	-
서산시	3.67	3	3.17	0.50
논산시	3.31	11	3.39	△0.08
계룡시	3.83	2	3.20	0.63
당진시	3.60	5	3.40	0.20
금산군	3.66	4	3.21	0.45
부여군	-	-	3.31	-
서천군	3.13	13	3.48	△0.35
청양군	3.41	8	3.42	△0.01
홍성군	3.40	9	<b>3.61</b>	△0.21
예산군	3.56	7	3.29	0.27
태안군	3.32	10	<b>3.63</b>	△0.31

## 5. 마을주민의 의식 변화 및 내용

### 1) 마을주민 의식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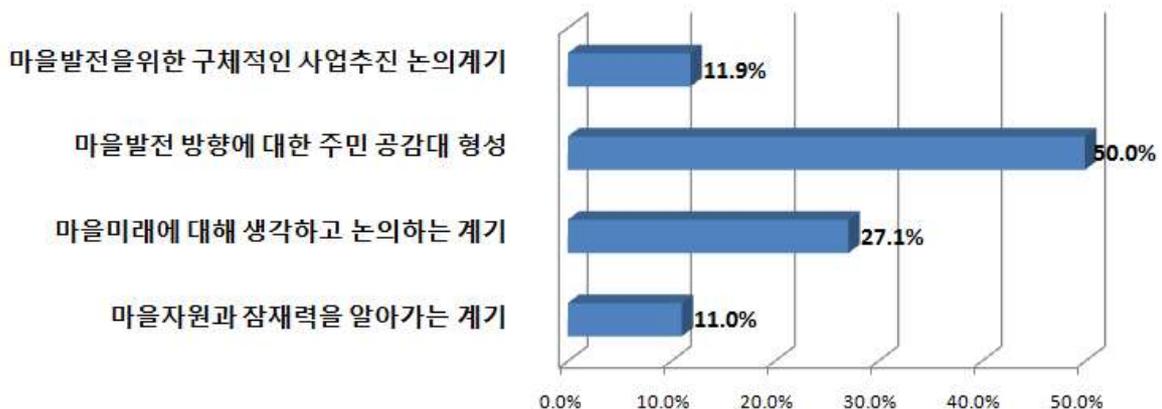
- 마을발전계획 수립 전·후를 비교할 때 마을주민들의 의식의 변화정도를 살펴보면, 전체의 70.1%의 주민이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응답하였고, 23.8%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함
- 반면,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응답은 전체의 6.1%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



### 2) 긍정적 변화 내용

- 마을발전계획 수립 전에 비해 수립 후 긍정적으로 변화된 내용으로는 ① 마을발전 방향에 대한 주민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됨(50.0%), ② 마을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주민들 간에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됨(27.1%), ③ 마을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의 논의를 갖게됨(11.9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**마을발전계획 수립 후 긍정적 변화 내용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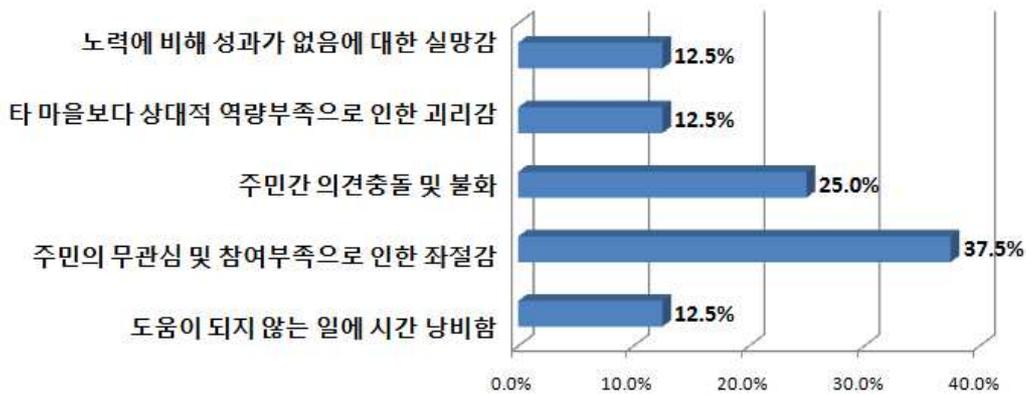


### 3) 부정적 변화 내용

- 마을발전계획 수립 전에 비해 수립 후 긍정적으로 변화된 내용으로는 ① 마을발전

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 및 참여부족으로 인한 좌절감(37.5%), ② 계획수립 과정 상에 주민간의 의견충돌 및 불화 등으로 인한 갈등심화(25.0%), ③ 마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후회(12.5%), 타 마을에 비해 잠재력이나 역량이 부족함을 알게 됨으로 인한 괴리감(12.5%), 노력에 비해 성과(우수 마을 선정, 후속 사업지원 등)가 없음에 대한 실망감(12.5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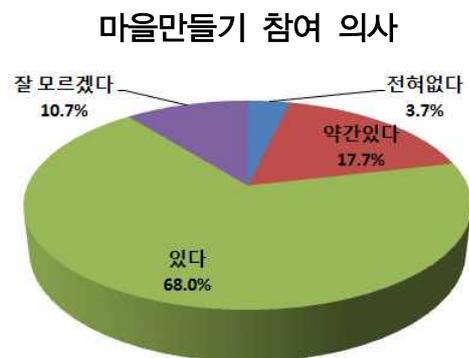
### 마을발전계획 수립 후 부정적 변화 내용



## 6. 마을주민 참여 의사 및 마을만들기 과제

### 1) 마을주민 참여 의사 및 역할

- 마을발전계획 수립 이 외에 「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」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, 대부분의 주민(85.7%)이 참여의사가 있음을 보였고, 반면 일부 주민(3.7%)은 참여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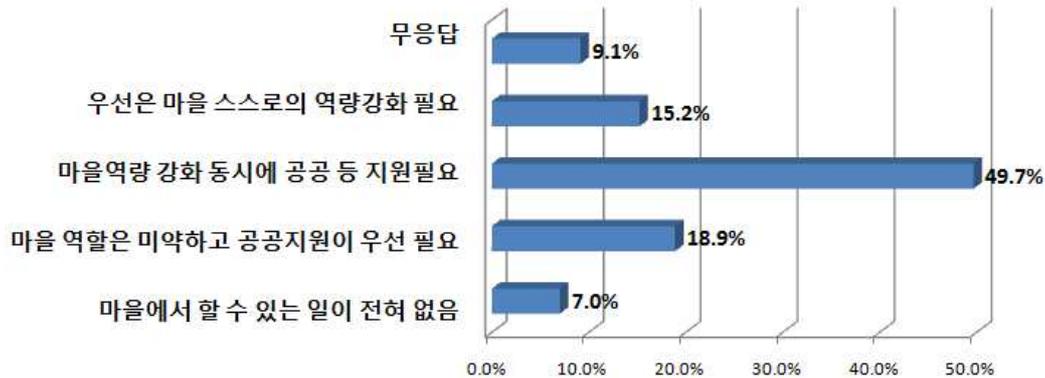


### 2) 마을(주민)의 수행 가능한 역할

- 「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」에 참여시 마을(주민)이 마을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마을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공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(49.7%)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,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미약하고 무엇보다 공공의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도 18.9%를 점유함

- 반면, 외부의 도움보다는 마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우선 키워야 한다는 답변도 15.2%를 점유하였고, 고령화, 인구감도 등으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답변도 7.0%나 제시되어 전반적으로 내발적 발전보다는 외부 역량에 의지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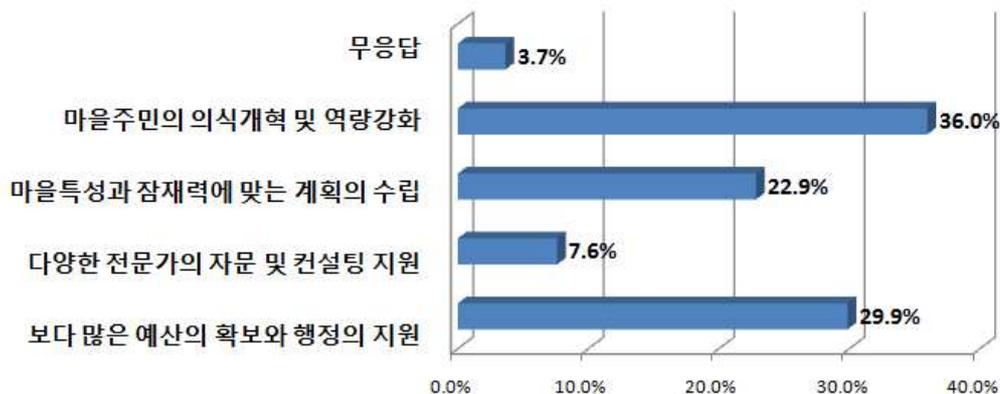
### 마을발전을 위해 마을(주민)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



### 3) 마을만들기 과제

- 향후 성공적인 「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」 추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로는 우선 마을의 리더육성 및 주민교육 등을 통한 마을주민의 의식개혁 및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(36.0%)이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는 보다 많은 예산의 확보와 행정(도청, 시·군청, 읍면사무소 등)의 지원(29.9%), 마을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마을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(22.9%) 등의 순서로 의견을 보임

### 성공적인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



### Ⅲ 요약 및 결론

- 본 연구에서는 2012년에 이어 2013년에 추진된 마을만들기(마을발전계획) 참여 주민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및 토의를 개최하여 마을만들기 관련 의식변화, 성과 및 문제점, 향후 과제 등을 도출하였으며,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

#### 1) 주민참여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, 외부역량 주도의 마을만들기 추진 사례도 일부 나타남

- 주민 참여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높았거나 처음에는 낮았다가 높아진 경우의 비율이 56.4%로 과반수이상을 보이고 있으나, 44.4%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낮았거나 처음에는 높았다가 낮아진 경우를 보이고 있어 참여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
- 마을자원 및 사업 도출 방법에 있어서는 대부분 주민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나, 아직까지 외부역량에 의존하는 경향도 상당수(39.1%) 보이고 있어,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

#### 2) 마을발전계획 내용 및 마을학교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였으나 불만족 문제는 여전히 존재

- 2013년 마을발전계획 내용 및 마을학교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2012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, 일부 시군에서는 오히려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
- 특히, 2012년과 마찬가지로 마을발전계획 수립 내용에 있어 전체 주민의 합의가 없이 소수 몇 명에 의해 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외부주체에 의해 수립되었다는 불만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
- 마을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농번기 등 영농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일정이나 주민의 수준과 관심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내용 등에서 불만족 의사를 보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

#### 3) 마을만들기를 통해 주민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됨

- 2012년과 마찬가지로 2013년도 마을발전계획 수립 과정상에 주민참여도가 점점

- 높아졌으며, 대부분 주민주도의 상향식 계획수립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
- 주민 의식변화에 있어서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는 주민의 비율이 70.1%로 나타나 주민동기부여의 측면에서 마을만들기의 큰 성과가 나타남
  - 특히, 마을만들기를 통해 마을의 미래를 생각하고 마을발전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민단합의 기회가 된 것으로 나타남

#### 4) 마을만들기 참여의사는 있으나 아직은 외부역량 의지 성향이 강함

- 향후 마을만들기 추진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주민의 비율이 85.7%로 높게 나타났으나, 실제 마을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마을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공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49.7%, 무엇보다 공공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18.9%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내발적 발전의지보다는 외부 역량에 의지하려는 성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음

#### 5) 마을만들기 향후 과제로 더 많은 주민의 의식개혁과 역량강화가 제시됨

- 향후 성공적인 「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」 추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로는 우선 마을의 리더육성 및 주민교육 등을 통한 마을주민의 의식개혁 및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는 보다 많은 예산의 확보와 행정(도청, 시·군청, 읍면사무소 등)의 지원, 마을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마을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 등의 의견을 보임